

對西独, 電線·케이블 市場 開拓

- 年間 市場規模 30억 마르크 上廻 -

西独의 電線 및 케이블 需要 市場규모는 80년도에 DM31억으로서 79年度 DM27억에 비해 약 15%가 성장되었다.

이같은 需要增加의 배경에는 實需要 증가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國際市場의 생산가격이 상승된 데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價格上昇 요인으로는 銅을 비롯한 原鐵의 가격과 鋼鐵의 가격이 EC 國家에서 비교적 상승한 데 기인되고 있다.

生産面에서 81年度(1~6月)의 生産 실적이 重量面에서는 전년 총생산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나 金額面에서는 거의 50%에 달했다는 점을 보아도 生産價格이 어느정도 증가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西独의 81年度 生産은 金額으로 약 DM40억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西独政府는 生産支援 施策에 크게 작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生産계획 등 計酬經濟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케이블에 대한 生産需給計酬 등은 별도로 集計 발표하지 않고 있음)

西独 輸出入業界는 80年 이후 비교적 貿易依存도가 커지고 있어 특히 輸出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반면 輸入增加幅은 그에 미치지 못해 81年(1~11월)과 80年度 貿易收支의 黒字面에서는 8.7%로 증가했는데, 81年末까지 그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細分品目別 輸出入 실적에 있어 高周波 通信用 케이블의 輸出入은 81年度에 兩者 다같이 위축된 상태인데, 이는 世界 通信建設 産業

이 둔화된 데 기인되고 있으며, 車輛用 접속 케이블은 輸出과 輸入이 크게 증가되었다. 그 원인은 西独의 케이블이 對外競爭力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輸入에 있어서는 오스트리아, 유고 및 스페인 같은 低賃金國수준 국가들의 製品이 저렴한 가격으로 오퍼된 데에서 기인되고 있다. 한편 合成樹脂로 커버된 通信用 기타 케이블은 81年度에 輸入이 훨씬 증가되었고 輸出은 약간 뒤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輸出은 아직도 전혀 없는 상태이나 東歐國家 중 유고, 폴란드 및 루마니아는 西独에서 自國政府의 조지를 통한 輸出확대에 나서서 對西歐 交易事務所를 개설하는 등 모든 가능성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輸出展望品으로는 車輛用 接續케이블과 其他 보통 케이블을 들 수 있는데, 車輛用 接續케이블의 경쟁국으로는 유고와 自由中國을 들 수 있다. 또한 其他 보통 케이블에 있어서는 포르투갈과 루마니아 등이 나타나고 있다.

産業用材인 케이블은 그 市場構造도 특이하여 小賣·都賣商은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의 것이 얼마의 가격수준인지 알 수가 없다. 경쟁국이라고 볼 수 있는 東歐, 스페인 등이 오래전부터 西独에 진출을 하고 있어 市中에서 그 原產地를 알 수 있다하더라도 價格比較를 위한 同種, 同位의 商品을 감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가격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西独에 수출이 전혀없어 西独 輸入商과의 접촉을 통한 價格情報 입수에도 난관이 있다. 다만 西独의 輸入商은 産業材의 경우 50%의 마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 통례이며, 都賣商은 45%, 小賣商은 50%의 마진율을 얻는

● 海外電子市場情報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써 FOB價格 기준으로 보아 流通構造의 總마진률이 누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경쟁국과의 現地 마케팅 비교는 우리나라의 輸入實績이 없어 비교할 수 없다. 단지 東歐陣營의 輸出國家들과 自由中國은 通信用 케이블에 있어 輸出實績이 매년 신장되고 있다.

西獨의 케이블 輸出入 基本政策은 自由貿易 經濟原則을 택하고 있어 輸入制限이나 쿼타 또는 기타 規制政策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케이블은 GSP 輸出品目으로서 無稅이다. 한편 西獨에서는 國內 輸出入業界 支援策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업체 지원 등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産 케이블의 對西獨 진출에는 많은 문제점이 內在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의 電氣, 電子産業이 美國 및 日本의 体制(産業規格)에 바탕을 두고 있어 西獨의 VDE(西獨 電子, 電氣技術規定)에 정한 DIN에 부합치 못하고 있는 관계로 우선 産業規格의 적용여부가 문제시 되고 있다.

다만 自由中國이나 東歐國家의 輸出실적을 미루어 보아 通信用 및 車輛接續 케이블은 韓國에서도 선두에 내세워 輸出을 시도할만 하나 앞에서 언급한 VDE 規格에 합당한 製品 이어야 한다.

DIN의 研究 및 技術移轉은 短期産業이 아니고 中期的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西獨에 輸出하기 위해 그 연관산업체의 主要國 産業規格에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시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美國, 가리움砒素 開發박차

- 半導體基板 새로운 素材로 각광 -

실리콘을 대신하는 새로운 半導體 基板 素材인 가리움砒素를 사용한 素子의 開發이 최근 歐美諸國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美國의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휴렛패커트(HP) 등 兩社가 각기 고성능 가리움砒素인 모노리스크(한개의 돌을 의미) IC 增幅器를 시험제작한 데 이어 프랑스에서도 톰슨CSF 中央研究所가 실온에서의 게이트 지연시간이 19피코초(1 피코초=1 조분의 1초)나 되는 고속가리움砒素·가리움砒素 알루미늄 接合 FET(電界效果 트랜지스터) 링의 試作에 성공했다고 한다.

실리콘 대신에 가리움砒素를 半導體基板에 사용하면 정보 전달속도가 나노초(10억분의 1초) 단위에서 피코초 단위로 단축되어 초고속 트랜지스터의 開發이 가능해진다.

또한 악조건에서의 내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自動車 및 각종 工業用 半導體 등 다양한 製品 開發을 행할 수가 있으며 電氣信號를 光信號로 전환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어 光通信用 部品에도 응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내외의 半導體 業界에서는 집적도의 향상과 병행하여 양질의 가리움砒素 및 이의 응용제품에 대한 開發열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금번 美·佛의 試作도 次世帶 半導體의 개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인데 금후 성능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半導體産業은 電子工業 외에 鈹物理·化學·物理·數學·光學 등 첨단기술이 모두 집약되어 있다. 品質管理 및 生産技術面에서는 외국 메이커에 대해 우위성을 보여온 日本 메이커들도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歐美에 비해 크게 뒤져있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 歐美메이커의 잇다른 砒素를 사용한 半導體 開發은 日本메이커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시련을 강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英國, 自由中國產 TV에 輸入 쿼타撤廢

- 컬러 컴비네이션TV에만 該當 -

自由中國에서 英國으로 輸出되고 있는 컬러 TV 세트에 대한 쿼타規制가 해제되었다고 自由中國 國際貿易局이 발표했다.

同規制 완화조치는 라디오와 카세트 레코더 등을 겸용해서 사용하는 携帶用 컬러TV에 한정되어 있으며, 82年度 自由中國의 電子製品 輸出을 협의하기 위한 自由中國과 英國 兩國間의 電子製品 製造業체協會 사이에 체결된 協定에서 체결되었다.

이번의 새로운 貿易法案에 따라 自由中國의 컬러 컴비네이션TV 輸入業者가 英國으로 輸出할 경우에는 外換業務를 취급하는 自由中國 銀行에서 필요한 輸出許可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黑白 컴비네이션TV는 컬러TV와 品目分類가 다르기 때문에 對英 輸出時 계속 輸入쿼타를 배정받도록 되어 있다.

印度, 電子品目 輸入稅 引下

- 特惠輸入稅 허용 電子品目 확정 -

印度政府는 82/83年度 (82. 4~83. 3) 豫算案에서 特惠輸入稅를 허용할 電子品目的 리스트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資本財 部門에서 약 45개 品目이 現行稅率 50~80%에서 25%로 대폭 引下될 것이며 (실제로는 特別稅 10%를 加算한 35%), 特定原材料에 대한 輸入稅는 현재의 80~250%에서 일률적으로 45% (實際로는 55%)로 引下될 것이다.

한편 同豫算案은 Kit品目 및 半加工製品의 輸入稅를 150%로 그리고 비디오, 카세트 등 奢侈品目에 대한 消費稅를 현재의 8%에서 25~40%로 引上하도록 되어 있다.

印度国内 電子産業은 이와 같이 82/83 年度豫算案에서 資本財 및 原材料에 대한 輸入稅를 引下하고 몇몇 完製品에 대한 輸入稅 및 消費稅를 引下함에 따라 크게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比, 電子·電氣製品에 輸入 自由化 措置

- 進出 有望, 高率關稅가 問題 -

필리핀 中央銀行은 최근 輸入緩和政策의 일환으로 電子·電氣 關聯製品에 대해 輸入規制를 철폐했다. 이에 따라 既存輸入 規制에 묶여있던 56개 電子·電氣製品이 사전에 中央銀行의 허가없이 輸入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80年 필리핀 政府가 立案한 關稅改正案에 따라 81년부터 85년까지 5년 동안 점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이며, 이에 따라 日本과 合作投資한 필리핀内の 電子·電氣製造業체들의 독점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필리핀 国内市場이 활기를 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電子·電氣關聯製品에 대한 輸入規制는 철폐되었으나 輸入關稅가 高率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70%~100%) 對필리핀 輸出에 大장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關稅引下 조치가 있을 것이며, 日本商標를 부착하고 있는 製品 이외의 外國製品에 대해 消費者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對필리핀 市場의 침투는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美國, 日製 半導体덤핑 調査 에 着手

- 日本製 64K RAM Chip 의 판매 공식조
사여부 -

美國政府는 日本半導体메이커 들이 美國市場
에서 64K RAM Chip 을 公正한 市場價格 이하
로 덤핑하고 있다는 告發에 「비공식적」으로 조
사하기 시작했다.

워싱턴當局은 2 週日내에 日本製 64K RAM
Chip 의 판매를 공식으로 조사하기 시작할 것인
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日本의 記憶用 Chip 의 값은 1980
年 이래 50% 이상이나 暴落하였다.

이것은 3 月初 日本의 주요 半導体메이커가
現代의 記憶用 Chip 의 輸出을 둘러싸고 日本
과 美國간에 造成되고 있는 貿易마찰을 완화하
는 조치를 취한 바로 수일 후 淨上했다.

日立社는 처음으로 오는 4 月부터 美國 텍사
스에 있는 공장에서 月産 10만개의 64K Chip 을
組立한다고 발표했다. 日立社는 그뒤 이 Chip
의 제조기술을 美國의 휴렛트·패커드社에 제
공할 것이며, 이 회사는 그 노우하우를 미니컴
퓨터와 과학장비 생산에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당분간은 日立社의 노력은 실제라기
보다는 상징적인 것이 될 것 같다. 日立社의 텍
사스工場の 生産은 82年 日光이 生産할 예정인
2,000만개의 64K Chip 의 5% 이하를 차지하
기 때문이다.

관련 휴렛트·패커드社의 代辯人은 同社가 日
立社를 포함한 外部 供給者로부터 필요한 Chip
의 대부분을 계속 購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富士通과 日本電氣 등 2 개의 日本 대
메이커들도 82年 여름까지 美國내에서 回路 Chip

일부를 제조할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美國
의 이번 조사는 이들 日本메이커들에게 계획을
앞당기게 부추키는 구실을 할지 모른다.

日本, 光디스크裝置 開發에 成功

日本의 富士通, 올림포스光學工業, 旭化成工
業의 三社는 先端技術인 光디스크 裝置의 共同
開發에 成功했다.

이 裝置는 컴퓨터의 磁氣테이프 25卷分을 30
cm의 디스크의 한쪽면에 收録할 수 있을 정도의
飛躍的인 記憶容量을 갖는 외에 데이터의 修正
記録(앞에 있는 記録을 지우고 그 위치에 다시
記録하는 것)이 可能한 것이 特徴.

富士通이 하드웨어를, 올림포스 光學이 半導
体레이저를 應用하는 光學디스크 메모리를, 또
旭化成工業이 디스크를 各各 担當하여 開發한
것이다.

美國, 半導体 3 社 技術제휴 - CHMOS 및 CMOS 를 사용하여 개발 된 제품을 대상으로 -

美 大型半導体메이커인 인텔社 등 유력한 3
개 회사가 새로운 半導体的 生産에 관한 기술
제휴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美半導体 業界
에서는 최근 共同研究 提携의 움직임이 늘어나
고 있는데 美最大의 綜合電機메이커 간의 단합
인 만큼 주목된다.

기술교환에 합의한 회사는 인텔, GE, 그리
고 GE 가 작년 1 월에 매수한 有力 半導体메이
커 인터실社의 3 개社로 계약기간은 5 年으로

되어있다. 대상분야는 CHMOS (高密度相補性金屬酸化膜 半導體) 및 이 半導體를 사용하여 개발된 제품이다.

인텔에 따르면 同社는 우선 CHMOS 프로세스 및 設計情報를 GE 및 인텔社에 제공하고 그 代價로 GE 등 2 개社가 이 새로운 半導體로 만드는 제품의 생산에 관한 설계정보를 얻게 된다.

인텔社는 관련제품의 생산을 83년경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歐美生産 日本製品도 禁輸 - 台灣, 音響機器 등 對象 -

台灣經濟部는 최근 輸出入先을 歐美에 한정시킨 제품은 歐美企業의 제품에 한하고 日本企業이 歐美에서 생산한 것은 輸入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台灣經濟部 國際貿易局은 2년전 음향기기 200여 품목의 輸入先을 歐美에 輸入을 신청한 상품 가운데에는 日本製品이 적지않다는 것이다. 이는 금지령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융통성을 주어왔으나 台灣經濟部長의 지시는 歐美에서 輸入한 製品 중에도 日本企業이 生産한 것이 있으면 輸入을 허용치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歐美로 LC를 개설했으나 生産국이 日本인 경우에도 앞으로는 輸入이 허용되지 않는다. 台灣經濟部에 의하면 日本製品의 輸入禁止

는 앞으로 生産国이 日本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輸入国別과 관계없이 日本製品인 경우 輸入을 허용치 않는다.

AM 스테레오放送 5개方式 認可

美聯邦通信委員會(FCC)는 AM 스테레오 放送方式에 대해 신청이 들어온 5가지 방식에 대해 이를 전부 認可한다고 발표하는 한편 AM방송의 실시를 「市場의 판단에 맡긴다」고 결론지었다.

이번에 FCC가 인가한 방식은 모토롤러, 마그나복스, 해리스, 벨라, 카안 헤제르친 등이

이에 대한 논평을 통해 헤제르친社는 카안-헤제르친方式을 채택하고 있는 스테레오 방송업자는 FCC 인가를 내려 有効해진 날로부터 거의 동시에 AM 스테레오 방송을 개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카안-헤제르친 方式用 受信機와 搬送裝置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카안-헤제르친방식은 FCC의 인가를 얻어 美国, 캐나다, 멕시코에서 상업베이스로 집중한 AM 스테레오방송 시험을 행해 왔는데 헤제르친社와 헤제르친 리서치社는 美国 및 海外 特許下에서 非獨点的인 라이선스를 受信機메이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